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툿찡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신명 30,10-14

화답송 | 시편 69(68),14와 17.30-31.33-34.36ㄱㄴ과 37(◎33참조)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

제2독서 | 콜로 1,15-2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10,25-37

영성체송 |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성가 | 입당 24 예물준비 41(217)
영성체 170(171) 파견 3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김영 보나벤뚜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최 안젤라
송준철 루카
문영현 요셉

생미사 지향

2025년 성령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을 위하여
김승환 베네딕도 영육건강
유기호 베네딕도 영육건강
민정신 아폴로니아
Sr.마리루시 수녀님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7월 13일	백이백	이태주	민재인	민덕미	김종선	이예진 한서희
7월 20일	김승연	김규헌	이경자	김미혜	김영숙	한서희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Sr.마리루시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월례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지하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연령회 월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모든 연령들을 위한 연도 봉헌 및 특강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특강주제: "노년기의 신앙여정을 위하여" - 지도신부

작은형제회 한국 관구 부제 서품식

대상: 이설빈 세례자 요한 OFM
성환석 마리프란치스코 OFM conv.
일시: 2025. 7. 14. 3:00PM(한국시간)
장소: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지하 성당
*프란치스칸 가족과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체 분배 봉사자 모집

세례 받은 지 20년 이상, 견진성사 받으신 분으로 미사 중 성체 분배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제29차 2025 미 동북부 성령대회

일시: 7월19일(토) 오전9시-오후7시
7월20일(일) 오전9시-오후5시
장소: 펠리시안 대학교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참가비:** $40
신청/문의: 917. 929. 4242(성령기도회회장 민재인 데레사)

성령기도회 주관 Special 찬양 미사

일시: 7월22일(화) 오후6시
장소: 다미아노홀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주례: 양창우 요셉 신부님(성 골롬반 외방 선교회)
미사반주: 청년 찬양팀
문의: 917. 929. 4242(성령기도회회장 민재인 데레사)

꾸리아 1일 성지순례

일시: 7월 26일(토) 8:00AM - 8:00PM
장소: National Centre for Padre Pio(필라델피아)
인원: 50여 명
문의: 347. 633. 3767(꾸리아 단장 윤숙자 루시아)

포르시운쿨라 천사들의 성마리아 축일 미사

일시: 8월 2일(토) 2:00PM
장소: 아랫성당(lower Church)
집전: 이웅희 루카OFM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전대사 특전미사로, 미사 전 고해성사 있습니다.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일시: 8월 15일(금) 6:00PM
장소: 윗성당(upper Church)
집전: 이웅희 루카OFM *미사지향,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믿을 교리"로 선포된 중요 대축일로써, 한국 전례력의 부활, 성탄, 천주모친 등과 함께 명시된 대축일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성탄 세례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례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Sr.마리루시 연중 피정 & 총회 참석

기간 : 7월 7일(월) ~ 7월 17일(목)
2024년 북미주 한인 수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중 피정 및 총회에 참여하오니,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은 휴무이며, **각종 증명서 발급**은 **7월 17일 이후** 가능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착한 사마리아인>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1853-1890)
1890, 캔버스에 유채 73x60cm
크뢸러 뮐러 미술관
네덜란드 오테를로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NY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OCTO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NY,NY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NY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색소 미백 레이저
주름 보톡스, 필러
212.697.1802
카카오톡 : clearlasercity1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과분한 행복의 이유

윤경호 바오로 ¦ 배우

오랜 시간 연기를 했지만, 무명 생활이 길었습니다. 그만큼 생활을 유지하기가 팍팍했죠. 배우라는 직업이 일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 일이라 고정 수입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렇다고 연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고 생활은 해야 하니, 이것저것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언제든 배우로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달려가야 했으니, 고정적인 일이 아닌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의대생을 상대로 한 '모의 환자', '텔레마케터', '공사장 일용직', '피에로', '무대 제작', '청과물 도매시장 야간 하역', '기업 연극', '전단지 알바' 등등 어느 날, 가만히 세어보니 30가지도 넘는 일을 해봤더라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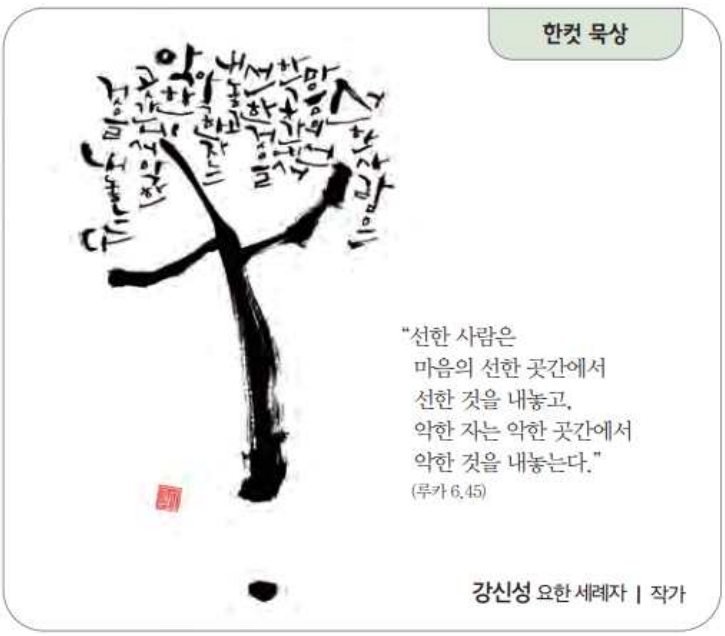
그러다 약 10년 전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만났습니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김신(공유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저는 전생(前生)에 주인공 김신의 충실한 부하, 김우식 역할을 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현생(現生)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던 제가 생각지도 못한 회사에 취직하고 집과 차까지 선물 받습니다. 그 회사는 김신의 회사였고 저를 알아본 김신의 특급 대우였던 거죠. 당황한 저는 왜 이런 걸 저에게 주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김신의 현생 비서(조우진 분)는말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서요."

감사하게도 이 작품 이후, 많은 분이 저를 배우로 알아봐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 갔는데 케이크가 서비스로 나오더라고요. 저에게 왜 이런 서비스를 주냐고 물었더니 사장님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셔서요." (아!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드라마 대사일 뿐, 당연히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전생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긴 했지만 제가 배우의 길을 걷는 데는 행운이 참 많았습니다. 먼저 배우의 꿈을 꾸게 된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연극을 하면서부터였죠. 특별한 재주가 없어, 어쩌다 하게 된 연극이었는데 준비 단계의 설렘, 무대 위의 긴장감, 친구들과 어른들의 기대에 찬 눈빛, 저를 향한 미소와 박수는 배우의 꿈을 꾸게 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배우의 길로 이끄신 거죠."

이후, 대학에서 훌륭한 스승님을 만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단역을 맡으면서 쌓은 인연들이 저를 배우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참 과분한 행복입니다. 저에게 왜 이런 기회를, 저에게 왜 이런 인연을 주시는 거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나라를 구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라서

"내 아들 바오로라서."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사랑을 갚을 길은 없고 그저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